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주년 맞아

성령의 역사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의 은혜와 감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이파 ICC에 모여 기념 집회를 가졌다.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경계하시며, 열마나 이러한 신앙이 위험한지를 깨우쳐 주셨다.

“GCN 방송 대단합니다”

GCN(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방송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기쁨을 맛보며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만민뉴스

제504호 2011년 10월 2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주년 기념 집회

이스라엘 하이파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0월 13일,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주최로 미국 모리스 세를로 박사를 초청해 미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핀란드, 한국 등 세계 12개국과 이스라엘 20개 지역에서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지난 2009년 9월 이스라엘 예루살렘 ICC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한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2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필리핀 올 크리에이션 회장단 우리 교회 방문

필리핀 기독교단체인 올 크리에이션 회장단 일행이 지난 10월 6일부터 6박 7일간 우리 교회를 방문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환담을 나누고 이 목사의 기도를 받았다. 또한 관계자들을 만나 GCN 방송 및 문서 사역에 대해 논의했다.

일행은 올 크리에이션 회장 그렉 두란테 목사를 비롯해 부회장 로버트 네리 목사(가비떼 주 기독교 목회자협회 총회장), 총무 셀소 산 호세 목사(독립교단 비숍협회 회장), 사무 진행위원 마누엘 부엔수세스 목사(마닐라 파사이스티 목회자 회장), 마리오 라우렌테 목사(GMA 지역 총회장) 총 5명이다.

올 크리에이션(All Creation)은 ‘2001 이재록 목사 초청 필리핀 연합대성회’ 이후 만민의 사역과 협력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연합해 조직한 단체이다. 세미나 및 순수건 집회(행 19:11~12)를 통해 만민의 사역을 필리핀 전역에 전하고 있으며,



올 크리에이션 회장 그렉 두란테 목사(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일행이 ‘크리스천투데이’ 녹화를 마친 뒤 GCN 방송 관계자들과 함께했다.

성경 복음을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그렉 두란테 목사는 “2001년 이재록 목사님의 만남을 한 번도 잊어 본 적이 없다”며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기억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편 이재록 목사의 설교와 권능 사역을 전하는 GCN 방송이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돼 현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1회 말씀퀴즈대회 개최

지난 10월 16일 주일 저녁예배 후 제1회 말씀퀴즈대회 본선이 우리 교회 본당에서 남선교회총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1, 2차 예선을 통과한 우리 교회 및 대전, 천안, 창원, 서부산, 대구, 여수, 서산, 밀양, 구미, 전주 등 지교회에서 총 54명이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는 성구의 정확한 암송은 물론 구문 응용까지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

대상에는 이은선 집사(대전), 금상에는 황금란 전도사(서울), 은상에는 허남숙 전도

사(대전), 동상에는 최정자 전도사(서울), 허현주 집사(여수), 안계현 집사(대전), 장려상에는 박흥용 목사(대전), 심정주 권사, 김상균, 홍성란, 고경석, 이재석 집사, 이승주 자매(이상 서울), 오준 형제(구미)가 수상했다.

이은선 집사는 “말씀 암송하면서 깨우친 것을 붙잡고 화개하고 금식하며 성결을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상을 주셨다”고 대상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1일 주일 대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1차 예선에는 약 2천 명이 참여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뜨거운 사모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일정 수준의 성구 암송 실력을 갖춘 성도들은 이날 저녁예배 후 2차 예선을 치렀다. 또한 같은날 각 지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1, 2차 예선을 치렀다. 2012년에는 왕중왕전이 1회부터 12회까지 은상 이상의 수상자를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